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耽羅宮殿

윤은숙*

- I. 머리말
- II. 토곤 테무르의 탐라궁전 조성 목적
- III. 탐라의 몽골化
- IV. 탐라궁전 조성 결과
- V. 맺음말

국문요약

惠宗 토곤 테무르 카안이 탐라에 조성한 궁전을 紅巾賊이나 농민반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도피를 목적으로 한 ‘피난궁전’으로 규정하는 학계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흥건적은 토곤 테무르가 궁전 조성을 계획했던 1367년 2월 이전에 이미 元軍에 의해 와해되어 도둑의 무리로 전락했으므로 위협적인 세력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시기는 강남의 대표적인 反元세력인 주원장과 장사성이 대립하며 전쟁을 벌이는 때였으므로, 토곤 테무르가 이들을 위협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당시 토곤 테무르에게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은 奇皇后로 대표되는 황태자 권력의 2차레에 걸친 內禪시도와 軍閥 간의 대립으로 그가 실권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권을 상실하고 허수아비 황제로 전락하게 되자 권력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 大都에서 잇달아 전염병이 발병하자, 황태자 이유시라다라

* 강원대학교 교수.

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자신은 탐라에 궁전을 조성하고 옮겨 살기를 희망했다고 볼 수 있다.

14세기에 이르면 탐라는 대도의 물질문명과 몽골의 목축기술 전파로 이미 몽골화한 국제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몽골인들은 이질적인 풍광을 지닌 탐라를 ‘樂土’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토곤 테무르가 탐라에 궁전을 조성하고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탐라, 고려, 대원, 몽골, 토곤 테무르, 탐라궁전, 낙토

I. 머리말

1267년(지원4)에 濟州 星主 梁浩가 쿠빌라이 카안을 만났던 것을 시작으로 100여 년간 탐라와 몽골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 시기 때때로 고려의 요청으로 탐라가 고려에 환속된 시기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탐라는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다.¹⁾

초기에 大元帝國(이하 元으로 표기함)²⁾은 일본원정을 위한 군사 요충지로 탐라를 활용하려했지만, 원정이후에는 원의 국영목장으로 변모시켰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관원, 주둔군과 牧胡(哈赤, Qači, Qarači)들이 이주해 왔는데, 몽골의 발달된 목축기술이 탐라사회에 유입되면서 탐라는 2-3만 마리의 말을 보유한 목축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었다. 몽골인의 유입과 목축기술의 발달이 탐라의 경제적 번영을 견인해 1300년대에 이르러 縣이 15개로 증가하고 인구도 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탐라 최고의 전성기를 형성하였다. 종래의 半農半漁가 중심이던 탐라의 경제생활에서 목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목축문화는 물론이고 이주한 몽골인들에 의해 몽골문화가 탐라사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더욱이 몽골인

1) 본 연구에서는 『元史』, 『耽羅傳』에서 고려와 탐라를 별개 조항으로 기술한 것에 입각해, 제주에 대한 이 시기 명칭을 ‘탐라’로 표기하기로 함.

2) 이 시기 몽골의 국호는 대원제국이라는 하나, 그들의 정체성을 표시할 때는 몽골로 표기하기로 함.

들과 탐라인들 사이에 혼인이 빈번해지면서 半몽골화 半탐라화가 진행되어 14세기 탐라는 몽골화한 국제도시로 급부상했다.

이 시기 원의 惠宗 토곤 테무르(Togon Temür, Üqaqantü) 카안은 탐라에 궁전을 짓고 옮겨 살기를 희망했다. 이를 위해 금과 비단을 탐라로 보내 1367년(至正27) 2월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궁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토곤 테무르가 탐라에 세운 궁전을 흔히 ‘避難宮殿’이라고 부른다. 학계에서는 피난궁전을 조성한 이유를 元の 국세가 기울어짐에 따라 탐라로 피난하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³⁾ 구체적으로 토곤 테무르의 피난 목적이 紅巾賊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⁴⁾ 또한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탐라로 피신함으로써 세력을 축적한 후에 재차 中原으로 입성하기 위한 포석을 다지려 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⁵⁾

위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탐라궁전을 조성하려했던 1367년 2월 이전에, 토곤 테무르 카안 스스로 흥건적이나 농민반란세력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해야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토곤 테무르 카안은 피난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이들 세력들을 위협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1368년 1월에 應天府에서 明朝를 개국한 朱元璋이 북벌의 명분으로 군대를 大都로 파견해 공격해 왔을 때조차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들이 通州에 도착했음을 알고 나서야 급하게 복상을 결정할 정도로 당시의 정세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따라서 탐라궁전 조성의 목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원말의 상황에 대한 토곤 테무르 카안의 인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말의 대표적인 反元세력인 흥건적의 발호, 張士誠과 朱元璋 등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발호가 토곤 테무르로 하여금 피난궁전을 조성하게 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려

3) 에르테니 바타르, 「元·高麗 支配勢力 關係의 性格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대학원, 2006: 張金奎, 「明初倭寇海上三角“貿易”略論」, 『求是學刊』 41, 求是學刊編輯部, 2014.

4) 蔭木原洋, 「洪武帝期の對外政策考-濟州島に焦點を當てて-」, 『東洋史訪』 4, 兵庫教育大學東洋史研究會, 1998.

5) 김일우, 「제주 江汀洞 ‘대궐터’ 유적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학보』 60, 한국사학회, 2015, 147쪽.

한다. 또한 1367년 2월 이전에 토곤 테무르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던 궁정의 권력다툼과 전염병의 발병이 피난궁전 조성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토곤 테무르 카안이 많은 지역에서 왜 탐라를 지목해 궁전을 조성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봄으로써 14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탐라가 차지하는 위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II. 토곤 테무르의 탐라궁전 조성 목적

1) 원말 농민반란과 탐라궁전

기존 학계에서는 원말 농민반란으로 국세가 기울어지자, 토곤 테무르 카안이 도피 목적으로 탐라에 피난궁전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⁶⁾ 이러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고려사』 공민왕 16년 2월(1367) 기사 때문이다.

계해일에 원의 사신 高大悲가 제주로부터 와서 황제의 명으로 왕에게 綵帛과 錦絹 5백 50필을 주었으며 재추들에게도 등급에 따라 비단을 주었다. 그때 원의 황제가 제주에 避亂하려 하여 御府의 금과 비단을 수송하였고, 제주를 다시 고려에 예속시킨다는 조서를 내렸다.⁷⁾

원의 황제인 토곤 테무르가 제주로 피난하기 위해 御府의 금과 비단을 수송했다는 위의 기록을 통해, 원의 멸망을 직감한 토곤 테무르가 피난하려 했음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기사가 등장하는 1367년 2월에 주목해 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고대비는 大都에서 해로를 이용해 탐라로 갔다. 그가 탐라에 머문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궁전 터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가져간 금과 비단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등의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 했으므로 상당한 시간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1367년 2

6) 에르테니 바타르, 2006 : 蔭木原洋, 1998; 김일우, 2015 등.

7) 『고려사』 권41, 공민왕 16년 2월조.

월 開京에 도착했으나, 실제로 그가 토곤 테무르 카안에게서 명령을 받은 시기는 1367년 2월보다 훨씬 이전시기가 되어야 한다. 고대비의 이동경로를 고려한다면 1367년 2월부터 6개월에서 1년 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⁸⁾ 이와 관련해 1365년(지정25) 10월에 테무르 부카가 토곤 테무르의 명령을 받고 탐라로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무르 부카는 탐라에 머물다가 1366년 6월에 귀국했고 이후 탐라궁전 조성이 명령되었던 점에서 볼 때 그의 탐라방문 목적이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⁹⁾

만약 토곤 테무르가 원의 멸망을 예감해 피난계획을 세웠다면 1367년 2월보다 앞선 시기가 되어야 한다. 과연 이 시기 이런 계획을 세울 만큼 원의 정세가 기울고 있었음을 토곤 테무르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당시 원의 멸망을 재촉할 수 있는 반란세력은 홍건적의 발호, 남해의 해상세력인 장사성, 그리고 강남지역의 부호들과 농민세력을 규합한 주원장 등의 세 부류로 나뉜다. 즉, 원말의 대표적인 反元세력인 위의 세 집단들이 1367년 2월 이전에 원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에 따라 토곤 테무르가 탐라에 피난궁전을 지은 배경이 보다 선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홍건적은 성립 초기에 白蓮教의 교주 韓山童을 宋徽宗의 8대손으로 추앙하고 세력 확장을 모색했다. 이에 杜遵道·羅文素·劉福通 등의 3천명을 潁州에 집결시키고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1351년(지정11) 5월에 이들의 무장집결을 눈치 챈 관군에 의해 한산동이 체포되면서 1차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¹⁰⁾ 그 후 잔여세력들인 彭瑩玉·鄒普勝·徐壽輝·趙君用 등이 다시 세력을 결집했는데, 이들 중에 서수휘가 1351년 10월에 蕪州를 수도로 삼고 국호를 天完이라고 하며 황제를 칭하면서 원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또한 1355년(지정15) 2월에 유복통 집단은 亳州에서 한산동의 아들 韓林兒를 황제로 옹립한 뒤에 국호를

8) 李嶺, 「元順帝企圖避亂濟州島發微」, 『北大史學』 16, 北大史學雜誌社, 2014, 350-351쪽.

9) 貝瓊, 「『耽羅志略』 序文」, 岡田英弘, 『モンゴル帝國から大靑帝國へ』, 藤原書店, 2010, 178쪽 재인용.

10) 『元史』 권42, 「順帝本紀」 지정11년 5월조.

宋, 연호를 龍鳳이라 하고, 궁전을 짓고 백관을 임명해 한때 마치 소왕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¹¹⁾

개국한 유복통은 反元の 기치 아래 3개의 북벌군을 조성해 원에 대항하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우선 李舞와 崔德이 지휘하는 西路軍은 1356년 9월에 가장 먼저 출병하여 潼關에서 參知政事 述律杰과 전투해 격파하고 陝西로 진격해 갔다. 처음에 원은 유복통이 중심이 된 흥건적을 단순한 줌도둑으로 과소평가한 결과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남행성 일대에서 큰 세력으로 성장한 것을 본 뒤로는 사태의 중대함을 통감하여 본격적인 토벌에 착수했다.¹²⁾ 이에 豫王 아나트나시리가 이무와 최덕을 공격하여 동관을 회복했다. 또한 토곤 테무르 카안은 차간 테무르와 다르마르 軍에게 陝州와 동관을 지키게 하고 아나트나시리에게 이무와 최덕을 추격하게 했다.¹³⁾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한 최덕과 이무가 1360년(지정20)에 山西 군벌 李思齊에 투항함으로써 서로군이 와해되었다.

東路軍은 毛貴의 영도 하에 山東에서 하북으로 진격했으나 1358년에 同知樞密院事의 劉카라부카에 패해 산동으로 후퇴했다.¹⁴⁾ 이후 산동의 지배권을 두고 모귀와 조군용이 다투다가 조군용이 모귀를 살해했고 내분으로 동로군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 해 11월 하남 군벌 쿠케 테무르가 益都를 함락시키면서 산동 일대의 흥건적은 전멸되었다. 동·서군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흥건적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원군의 추격을 피해 關先生·破頭潘·李喜喜 등은 산서·섬서 등으로 도망쳤다. 한편, 도망치던 흥건적의 일부가 원의 여름 궁전으로 비어 있었던 上都城에 들어가 약탈과 방화를 일삼다가 관군이 추격해 오자 고려 경내로 도망치게 되었다.¹⁵⁾ 이 때 공민왕은 개경을 버리고 안동으로 퇴각하기도 하였으나 1362년(공민왕11)에 충공격을 감행해 이들 세력을 몰아냈다.¹⁶⁾

11) 『國初群雄事略』 권1 「宋小明王」: 『元史』 권44, 「順帝本紀」, 지정15년 2월조.

12) 오타기 마쓰오 저, 윤은숙·임대회 역, 『대원제국』, 혜안, 2013, 256-257쪽.

13) 『원사』 권44,45, 「순제본기」, 지정16년 9월조·지정17년 2월조.

14) 『庚申外史』 卷下.

15) 『庚申外史』 卷下.

16) 민현구, 「高麗 恭愍王代 중엽의 정치적 변동」,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2009:

고려에서 쫓겨난 홍건적의 잔당들은 요동일대를 떠돌다가 소멸되었다.¹⁷⁾

유복통은 1358년(지정18) 5월에 汴梁(현 開封)을 공격해 차지했으나 곧이어 낙양에 있던 차간 테무르의 반격을 받아 변량을 버리고 安豐으로 퇴거했다.¹⁸⁾ 그 후 그들 사이의 내분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분란이 계속되었고 유복통도 장사성의 공격을 받아 1363년(지정23)에 사망하고 말았다. 또한 1360년(지정20)에 陳友諒이 太平을 공격해 서수휘를 죽이고 국호를 大漢, 연호를 大義라고 하고 황제를 칭했으나, 1363년에 주원장과 벌인 鄱陽湖 전투에서 패배해 종말을 고했다. 대체로 홍건적의 무리들은 따르는 병력은 많았으나 서로 연계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행동했기에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또한 체계적인 군령 없이 무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오합지졸 형태였기에,¹⁹⁾ 초기에 약간의 盛世를 제외하고 관군이 본격적으로 토벌을 시작하자 맥없이 사분오열되고 말았다.²⁰⁾ 이 때에 이르면 홍건적은 방화와 약탈을 일삼는 도둑의 무리에 불과했으므로 1367년 2월 이전에 토곤 테무르가 홍건적을 피해 탐라에 피난궁전을 조성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²¹⁾

홍건적의 반란이 진압되는 것을 목도한 다른 반란집단들은 관군을 피해 長江을 건너 강남일대로 이주했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장사성과 주원장 등이다. 이 두 라이벌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1367년 2월 이전에는 토곤 테무르에게 위협적인 세력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장사성의 계속되는 관직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채 양자의 다툼을 관망하고 있었다. 본래 泰州 일대에서 官鹽을 운반했던 장사성은 원말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용해 태주와 高郵를 점거

이경희, 「고려말 紅巾賊의 침입과 安東臨時首都의 대응」, 『부산사학』 24, 부산사학회, 1993.

17) David M. Robinson, *Empire's Twilight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published by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for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and London 2009, 133-147쪽.

18) 『원사』 권45, 「순제본기」 지정18년 3월조.

19) 『명사』 권122, 「韓林兒傳」.

20) 王崇武, 「論元末農民起義的發展蛻變及其在歷史上所起的進步作用」, 『元史論集』, 北京圖書館出版社, 1984, 618쪽.

21) 瞿大風, 「元末山西的軍事爭奪」, 『蒙古學集刊』 1, 內蒙古大學蒙古學研究中心, 2012.

하고 국호를 大周, 연호를 天祐라고 하고 스스로 吳王을 자처했다. 본거지를 강남으로 옮긴 주원장은 1356년(지정16)에 강남의 요충지 集慶路(현 南京)를 함락한 뒤에 이곳을 應天府로 개칭하고 스스로를 吳國公이라 칭했다. 이후 강소성과 절강성의 서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1364년에 吳王을 자칭하게 되었다.²²⁾

강남 일대에서 세력권이 겹치게 된 두 명의 오왕인 장사성과 주원장은 전쟁을 통해 승패를 가릴 수밖에 없었다. 먼저 1365년 8월에 주원장이 20만의 군사로 선제공격 하자, 장사성은 11월에 주원장의 영역이었던 宣興을 공격하면서 반격을 시도했다. 양자의 대립은 주원장이 1367년 9월에 장사성이 지키고 있던 平江城을 함락시키고 그를 체포하면서 주원장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²³⁾ 이 때 강남에서 장사성 세력을 척결한 주원장은 남아 있던 잔여세력들을 규합해 1368년 1월에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大明, 연호를 洪武라 하면서 강남에 단일정권의 서막을 열었다.

그런데 피난을 목적으로 조성을 명령하였던 1367년 2월 이전까지 강남 일대에서 장사성과 주원장이 대립하면서 교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도에 있던 토곤 테무르는 이 상황을 피난을 도모할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본래 강남지역은 쿠빌라이가 남송을 병합한 이래 대원제국의 일부가 되기는 했으나 토곤 테무르 즉위 후 황하의 범람과 농민반란으로 운하가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에, 황하이북은 실질적인 원의 중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강남지역은 명목적 지배가 관철되고 있었다. 따라서 원을 공격해 복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남 일대의 반란 세력에 대해 원이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다.²⁴⁾ 따라서 高大悲가 공민왕에게 전달한 피난은 원말 흥건적의 발호나 강남 일대의 반란세력을 피해 후일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2) 오함 저, 박원호 역, 『주원장』, 지식산업사, 2003.

23) 高橋琢二, 「元末張士誠政權の興亡」, 『史學』 31, 三田史學會, 1958, 607쪽.

24) 『원사』 권141, 「擴廓帖木兒傳」.

2) 원말 내부혼란과 탐라궁전

토곤 테무르 카안이 흥건적의 발호와 농민반란을 제국 멸망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 인지하지 않았다면 왜 탐라에 궁전을 지으려 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원 궁정내부의 정치적 혼란이고 둘째는 당시 大都 일대에 만연해 있던 전염병 때문일 수 있다.

토곤 테무르 카안에게는 타나시리(Tanasiri), 바얀쿠투(Bayan Qüti) 그리고奇遇제이 쿠투(Öljei Qütu, 이하 奇皇后) 등 3명의 正后가 있었다. 이 세 명의 정후들은 각각 토곤 테무르 카안의 통치에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기황후는 제국 말기의 궁정 투쟁을 주도했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1353년(지정13)에 기황후의 아들인 아유시리다라(Ayuširidara)가 15세의 나이로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이 때 토곤 테무르 카안은 몽골의 전통에 따라 ‘中書省, 樞密院과 御史臺가 황태자에게 먼저 상주하도록’함으로서 아유시리다라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²⁵⁾ 물론 당시 어린 아유시리다라가 국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그의 모친인 기황후가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즉, 황태자 책봉을 기회로 아유시리다라를 앞세운 기황후가 실질적으로 제국 통치에 깊게 관여하기 시작했다.

기황후의 內禪시도는 토곤 테무르 카안 재위기간 동안 크게 두 번 발생했고, 이에 대한 토곤 테무르의 반격이 이루어지면서 제국 말기의 국정은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시도는 1356년 전후의 시기로, 기황후는 中書左丞相 카마르(Qamar, 哈麻)를 이용해 토곤 테무르로부터 양위를 얻어내려 했다. 이에 토곤 테무르는 카마르와 그의 가솔들을 惠州로 유배 보내고 1356년에 곤봉으로 쳐서 죽여 버림으로서 내선시도에 강력히 대처하며 권력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두 번째 내선 시도는 1359년 전후에 발생했다. 카마르 처형이후 조정은 케레이트 부족 출신의 치수간(Čisugan, 搠思監)과 한족 출신의 太平이 주도하고 있었다.²⁶⁾ 우선 기황후는 치수간을 압박해 자신의 편에 가담시키고 태

25) 『원사』 권43, 『順帝本紀』 지정13년 6월조.

평을 회유하려 했으나, 태평이 기황후의 의도를 거절하자 그를 섬서와 토번으로 유배 보냈다. 유배된 태평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다. 기황후의 내선 목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두 번의 내선 시도를 목격할 토곤 테무르 카안은 자신을 향해 오는 기황후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일로 토곤 테무르 카안은 기황후에게 분노해 둘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두 달 동안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²⁷⁾ 이 때부터 몽골 궁정에서는 토곤 테무르 카안과 아유시리다라의 대립구도가 분명해졌고, 조정내부 역시 황제黨과 황태자黨으로 분열되어 대립이 본격화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벌들이 궁정투쟁에 가세하면서 원말 궁정의 혼란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원말의 대표적인 라이벌 군벌로는 河南 군벌 쿠케 테무르와 四川 군벌 볼로르 테무르가 있었다. 이들 모두는 흥건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휘하 군사력을 크게 확장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일정한 관직을 하사하며 양측을 부추겨 서로를 견제하게 했기에 이 두 군벌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었다.²⁸⁾ 결국 볼로르 테무르와 노디샤, 투긴 테무르 등은 1364년(지정24) 7월에 ‘君側(아유시리다라)을 제거하겠다’²⁹⁾는 명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대도로 진입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토곤 테무르는 기황후를 유폐시키고 볼로르 테무르를 太保 및 中書左丞相으로, 노디샤를 中書平章政事로, 투긴 테무르를 御史大夫로 각각 임명하여 황태자과의 위세를 누르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했다.³⁰⁾ 반면, 볼로르 테무르의 군사행동에 놀란 아유시리다라는 급히 쿠케 테무르의 진영인 太原으로 도망쳤고 쿠케 테무르와 함께 전열을 가다듬어 1365년(지정25) 3월에 볼로르 테무르를 공격해 왔다. 다급해진 토곤 테무르는 볼로르 테무르를 주살하고 아유시리다라와 쿠케 테무르의 대도 입성을 받아들임으로서 이를 기회로 사실상 황제로서의 토곤 테무르의 통치는 끝나게 된다.³¹⁾ 이후부터의 정국은 아유시리다라와 기황후 그리

26) 『원사』 권205, 「搠思監傳」.

27) 『원사』 권114, 「后妃傳」.

28) 瞿大風·崔樹華, 「元末統治集團對山西地區的爭奪及其作用」, 『蒙古學信息』 2002-2, 蒙古學信息編輯部, 2002.

29) 『庚申外史』 卷上, 지정24년조.

30) 『원사』 권207, 「孛羅帖木兒傳」.

고 쿠케 테무르가 주도하는 형세로 바뀌게 되었으며 토곤 테무르 카안은 국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³²⁾

실권을 상실한 이즈음의 토곤 테무르는 다소 염세적이고 권력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토곤 테무르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유배생활을 전전하다가 寧宗 이린지발 카안의 급사로 예상치 못하게 13세의 나이인 1333년(元統원년) 6월에 즉위하였지만 허수아비 황제에 불과했다. 겨우 1339년에 독토와 결합해 權臣 바얀과 보타시리를 제거하면서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지만, 기황후의 양위요구에 큰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군벌 쿠케 테무르까지 합세해 자신을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실제로 궁정에서 토곤 테무르 카안은 계속해서 양위를 요구하는 기황후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³³⁾ 1367년 2월 이전에 토곤 테무르가 피난을 고려해 탐라궁전 조성을 명령했다면 이처럼 궁정내부의 치열한 권력다툼에 대한 염증과 피로함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대 중기 이후 1326년부터 1362년 까지 총 15차례 걸친 대규모의 역병이 발생했다.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전염병은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가져왔다.³⁴⁾ 1360년(지정20) 4월에는 시신 20만구를 매장했는데, 이를 위해 鈔2만7천9십錠과 쌀 560여석을 사용했다.³⁵⁾ 당시의 정황을 전하는 『四佳集』 『悲義塚辭』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元順帝 至正 무술년에, 천하에 큰 난리가 나서 國門 동쪽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高麗 사람으로 元朝에 벼슬하여 資政院使가 된 이가 있어 義財를 회사하여 구덩이 수십 개를 만들고 구덩이마다 萬人的 시체를 合葬한 다음 齋를 올려 致祭하고, 종이를 오려 紙錢을 만들어서 冤鬼들을 씻어 주는 노자로 삼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 이것을 萬人院이라 불렀다.³⁶⁾

31) Д. Гүн-Үй лс, *Монгол Хаад Я Төрт Ёс Хаадын Сан*, 2006, 123쪽.

32) 『庚申外史』 지정26년조.

33) 『원사』 권114, 『后妃傳』.

34) 郭珂·張功員, 「元代疫災述論」, 『醫學史研究』, 醫學與哲學 29, 2008, 60쪽.

35) 『원사』 권204, 「宦者傳 朴不花」.

계속되는 역병의 창궐로 하남, 하북, 산둥 등에 거주하던 이들이 대도로 몰려들어 왔고 이 때 죽은 시체가 대도 성 밖에 산더미처럼 쌓이자 박부카(朴不花)가 萬人坑을 파고 시체를 매장했다.³⁷⁾ 이 때부터 올빼미 백 여 마리가 밤부터 새벽까지 날마다 울었다³⁸⁾는 기록으로 볼 때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제국을 뒤흔든 크고 작은 재해와 역병이 제국 말기까지 계속되었고, 토곤 테무르 정권은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한 채 추락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국 말기의 계속되는 역병의 발생은 토곤 테무르에게 역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곳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역병의 발병이 토곤 테무르 카안에게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탐라에 궁전을 조성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탐라의 몽골화

토곤 테무르 카안은 많은 통치 지역 가운데서 왜 탐라에 궁전을 만들려고 한 것일까? 앞 장에서 살핀 것처럼 궁전 조성의 목적이 원말의 궁정투쟁에 대한 염증과 계속되는 역병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려 했던 이유에서 볼 때 탐라가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만약 기황후의 요청대로 대칸의 자리를 아유시리다라에게 양위한다면, 토곤 테무르가 거처할 수 있는 장소로는 초원이 있는 몽골리아, 요동일대 그리고 고려 등이 있다.

그런데 쿠빌라이와 아릭부케의 대칸 쟁탈전 이후 몽골 스텝에서는 쿠빌라이계의 집권을 반대해 1276년(지원13)에 시리기와 카이두 등의 반란이 연속해서 일어났다. 또한 토곤 테무르 재위기인 1360년(지원20)에는 우구데이의 후손 陽翟王 아르히 테무르(Arhi Temür)가 토곤 테무르 집권에 반대해 군사를 일으켜 서북제왕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곤 테무르가 몽골리아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

36) 『四佳集』 권1 「悲義塚辭」, 韓國文集叢刊 10輯, 2013.

37) 『원사』 권204, 「宦者傳 朴不花」.

38) 任崇岳, 『庚申外史箋註』卷下 中州古籍出版社, 1991, 99쪽.

다.³⁹⁾ 게다가 토곤 테무르는 몽골리아에서 출생하지 않았기에 초원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동 일대는 옷치 긴계로 대표되는 동방 3왕가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갔을 경우 제왕세력과 대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고려는 기황후의 출신지역으로 향후 아유시리다라 정권이 창출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고려에 궁전을 조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토곤 테무르는 고려 大靑島에서의 유배생활을 통해 일찍이 섬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는 明宗 코실라의 장자이기는 했으나 모친의 출신 배경과 문종 특 테무르의 의심으로 일찍부터 체위계승권에서 떨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코실라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살 이던 1330년(天歷3, 충숙왕17) 7월에 대청도에서 1년 5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⁴⁰⁾ 대청도는 아야치 왕, 쿠케다이 왕, 魏王 아무가 등 원대 황족들이 주로 유배되었던 장소로 일반적인 유배지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고려왕실에서는 몽골 황족들이 대청도로 유배 오면 그들에게 궁전을 지어주고 개경으로 불러 연회를 베푸는 등 융숭히 대접하기도 했다.⁴¹⁾ 토곤 테무르가 유배되었을 때 그는 대청도의 중심지인 內洞에 있던 궁전에 거주하였다. 이 때 토곤 테무르를 시중들기 위해 100여戶의 사람들이 동행했고, 이들이 먹을 양식들을 庫舍洞(또는 庫柱洞)에 보관하는 등 매우 풍족한 섬 생활을 향유했다.⁴²⁾ 따라서 대청도의 생활은 토곤 테무르에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자유로웠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토곤 테무르의 대청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설화로는 海州 神光寺의 緣起說話가 있다. 이 설화에 따르면 토곤 테무르가 신광사를 지어준 대가로 황제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즉위한 토곤 테무르는 1333년에 충숙왕에게 “해주 신광사에서 長壽를 祝願하라⁴³⁾”는 教旨를 내리고 있으므로, 그가 이 설화와 어느 정도 관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대

39) 『원사』 권206, 「叛臣 阿魯輝帖木兒傳」.

40) 『고려사절요』 권24, 충숙왕17년 7월조: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 원년 12월조.

41) 『고려사』 권29, 충렬왕 9년 8월조.

42) 襄津郡鄉里誌編纂委員會 編, 『襄津郡鄉里誌』, 예일문화사, 1996, 508-509쪽.

43) 『고려사』 권35, 충숙왕 後4년 8월조.

청도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탐라궁전을 조성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토곤 테무르 카안이 탐라에 궁전을 조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거처를 옮겼을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을 정도로 탐라가 이미 ‘작은 몽골사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67년(지원4)에 쿠빌라이 카안이 제주 星主 梁浩를 만났던 것을 시작으로 몽골과 탐라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쿠빌라이 카안에게 탐라는 일본원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했다.⁴⁵⁾ 우선 1273년에 쿠빌라이 카안은 탐라에 은거하고 있던 삼별초를 제거하고 탐라를 평정한 뒤에,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고 招討使로 시리백과 尹邦寶를 임명하였다.⁴⁶⁾ 비록 시리백이 바얀을 따라 남송원정에 참여했으므로 탐라에 파견되지는 않았으나, 초토사를 설치하고 시리백을 우두머리로 삼은 점에서 볼 때 쿠빌라이 카안이 탐라를 전략적 기지로 삼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초토사가 군사적 토벌과 항복한 자를 招撫하는 것을 그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탐라국초토사의 설치는 다분히 군사적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⁴⁷⁾

초토사로 임명된 시리백의 가문은 몽골제국에서 대대로 軍功을 세운 집안이다. 祖父 케구르트(怯古里禿)가 칭기스칸을 따라 西夏원정과 金國원정에 참여해 공을 세웠고, 시리백 역시 조부와 부친의 직을 계승해 河南行中書省 斷事官이 되었다. 1270년(지원7)에 水軍 4만을 이끌고 襄陽을 공격해 樊城을 포위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시리백 가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탐라에 대한 쿠빌라이의 의도는 일본원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⁴⁸⁾ 1276년(지원13)에 군사원정 중 시리백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타라치(塔刺赤)를 다루가치로 임명해서 대대로 이 가문에게 탐라통치를 위임하였다. 탐라에 대한 쿠빌라이 카안의 특별한

44) 권오중, 「大靑島에 온 流配人」, 『人文研究』 20-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197쪽.

45) 『원사』 권4, 「世祖本紀」 지원4년 정월조.

46) 여원관계사연구팀, 『譯註元高麗紀事』, 선인한국학연구원, 2008, 285쪽.

47) 『續通志』, 職官.

48) 『원사』 권133, 「失里伯傳」.

관심이 전략적이었음은 『元史』에서 “世祖가 고려를 이미 臣服시키고 탐라를 南宋과 日本 간의 요충으로 삼아 주의하였다.”⁴⁹⁾는 기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탐라국초토시는 일본원정이 본격화되면서 1275년(지원12)에 특수한 행정기구인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대체되었다. 이 기구는 탐라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행정기구로 군민총관부와 도다루가치를 결합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군민총관부는 원대 路總管府와 동급의 기관으로 탐라의 군과 민에 대한 행정, 재무, 사법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⁵⁰⁾ 총관부는 上·中·下路로 구분하고 각각 지역에 관원을 파견하는데 上路의 경우 다루가치 1명, 總管 1명, 그 외에 同知, 治中, 判官 각각 1명씩 파견되는 것이 원칙이었다.⁵¹⁾ 그런데 탐라에 파견된 다루가치의 경우는 도다루가치로, 도다루가치란 우두머리 다루가치(Tug Daruγači)이므로 이 시기 쿠빌라이 카안이 일본 원정을 염두에 두고 우두머리 다루가치를 파견한 것으로 해석된다.⁵²⁾

이후 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는 1284년(지원21)에 耽羅國軍民安撫使로 되었다가 1300년(대덕4)에 耽羅總管府, 1301년에 耽羅軍民萬戶府가 되면서 원 황실의 목장을 지키는 주둔군의 성격으로 바뀌었다.⁵³⁾ 1333년(원통원년)에는 耽羅國軍民按撫使로 개칭하고, 타라치의 아들인 누리니타(Nurinita)를 다루가치로 파견했다가,⁵⁴⁾ 1362년(지정22)에는 탐라만호부로 개칭하였다.⁵⁵⁾ 이처럼 원은 탐라에 행정기구들을 설치해 필요에 따라 군과 민을 통제하였다. 비록 1305년 충렬왕이 탐라를 고려 정부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해 승낙을 받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 지역이 황실의 목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고려가 탐라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49) 『원사』 권208, 「耽羅傳」.

50) 『師山集』 권6, 「珊竹公遺愛碑」.

51) 『원사』 권91, 「百官志」.

52) 張金詒, 『元代地方行政制度研究』, 安徽大學出版社, 2000, 208쪽.

53) 『고려사』 권31, 충렬왕 27년 3월조.

54) 『원사』 권38, 「順帝本紀」, 元統元年 12월조.

55) 高昌錫, 「『元高麗紀事』耽羅關係 記事의 檢討」, 『慶北史學』 21, 1998, 465-466쪽.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新書苑, 2000, 288-289쪽.

탐라에서 언제부터 말사육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몽골 지배기 이전에도 말을 사육했다는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다.⁵⁶⁾ 다만 목마장을 갖추고 말을 체계적으로 사육하기 시작한 때는 1276년(지원 13)에 쿠빌라이의 명령으로 다루가치 타라치가 160여필의 몽골말을 탐라로 유입하고 목장을 건설하면서 부터이다.⁵⁷⁾ 해발 1,950m의 한라산은 사면의 고도와 경사에 따라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고도 200m 이하의 해안저지대는 경사도가 4°이하로 완만하며, 고도 200~600m 사면은 중산간지대이고, 600-1,200m의 산악지대는 경사도가 10~20°로 다소 가파르며, 1,200m 이상의 정상부는 경사도 20°이상의 고산지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라산은 고려 목종시기인 11세기 초에 두 차례 폭발한 이후 휴화산이 되었기에 산의 윗부분은 화산재로 덮여 있는 火山灰土로 대부분이 유기물과 결합된 堆壤土이므로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온대·냉대 등 300여종의 다양한 식물군이 분포하고 있어서 목초지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⁵⁸⁾ 탐라의 목초지 특성은 일본 원정을 염두에 둔 원에게 목장을 조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여기서 말을 사육한 뒤에 원정에 직접 투입시키려 했다. 따라서 원은 1276년에 城山邑 水山里 水山坪과 翰京面 高山里 일대에 동·서 아이막(阿幕)을 설치하고 하치(哈赤, Qači, Qarači)들을 파견해 몽골의 전통방식에 의거해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다.⁵⁹⁾

원이 탐라에서 말을 사육한 이유가 일본원정을 염두에 둔 행동이기는 하나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원에게 탐라 말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296년(元貞2)에 테무르 카안은 탐라의 목축 사무를 위해 斷事官 무치(Müči)를 파견해 관리하게 했는데 이 시기 탐라목장이 원의 14개 목장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테무르 카안은 즉위 후 14개의 국영목장을 조성하고 지정된 가문에서 대대로 관리하도록 했다.⁶⁰⁾ 탐라에 파견된 단사관 무치 역시 국영목장의 관리

56) 『고려사』 권24, 고종45년 5월조. 『고려사』 권25, 원종1년 7월조 등.

57) 『고려사』 권28, 충렬왕 2년 8월조.

5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5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동국문화사, 1959, 36-37쪽.

60) 『원사』 권100, 「兵志·馬政」.

를 위해 파견되었다. 14개의 국영목장이 조성되었던 장소들은 몽골의 7 지역, 대도 주변의 3지역, 감숙 일대의 1지역, 안휘 일대의 1지역, 운남과 탐라 지역 등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의 초지 조건이 매우 양호한 우수한 목마장이다. 탐라의 경우 규모는 다른 목장들에 비해 작지만, 화산 지대의 특성상 다양한 수종이 분포해서 목초지가 풍부하고 개량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⁶¹⁾ 또한 1300년(대덕4)에 테무르 카안은 자신의 모친인 쿠케친 카툼을 위한 말을 탐라에서 사육하게 함으로서 탐라목장이 皇室 목장도 겸하게 되었다. 나아가 원의 太僕寺·宣徽院·中政院과 資政院 등에서도 말을 보내 탐라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원의 직접 관리 하에 유목사회의 발달된 목축기술이 대거 유입되었다.⁶²⁾

이 시기 하치들은 발달된 몽골의 가축 거세방법을 도입하여 우량종을 개발하고 낙인을 찍어 사육하는 말을 철저히 관리했다. 또한 양질의 초지를 제공하기 위해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및 산간지대 등을 포함하는 탐라 전역으로 유목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⁶³⁾ 탐라목장에 대한 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말의 사육두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이미 1300년에 “말의 번식이 산야에 가득했다⁶⁴⁾”고 한다. 이것은 명조가 공민왕에게 “원이 말 2-3만 필을 제주에 남겨 두고 사육하였으니 많이 번식하였을 것이다.⁶⁵⁾”라고 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명조가 고려에 말을 요구하기 위해 억측을 부리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조선 세종 때에 제주의 말이 1만 여필이었다는⁶⁶⁾ 기록을 통해서 볼 때도 당시 탐라에 말의 개체 수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몽골 지배기를 거치면서 탐라사회는 이전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부분적 목축과 半農半漁가 행해지던 이전과는

61) 박원길, 「대몽골(元)제국 시대의 양마법(養馬法과 가마장비」, 『제주도연구』43, 2015, 20-21쪽.

62) 『고려사』 권57, 지리2, 탐라현조.

63) 김일우, 2000, 180-184쪽.

64) 『耽羅紀年』 권1, 충렬왕26년조.

65) 『고려사』 권44, 공민왕23년 4월조.

66) 『세종실록』 권14, 세종3년 12월조.

다르게 탐라 전역에서 목축이 이루어지면서 탐라인의 생활모습에서 목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탐라인들 사이에서도 몽골말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탐라인과 몽골인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⁶⁷⁾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도 해안지대에서 중산간지대로까지 확장되었고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제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1300년대에 이르면 현의 개수가 15개로 증가했다. 또한 인구의 측면에서도 1274년에 1만 여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374년에 이르면 3만 명 내외에 도달할 정도로 괄목할만하게 증가하였다.⁶⁸⁾

탐라사회에 변화를 초래한 도래한 몽골인들은 관원, 주둔군, 하치와 유배인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몽골인들은 유목의 내재적 특성상 모두牧民이 될 수 있기에 탐라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했다. 또한 대도에서 출발한 몽골인들이 개경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로를 이용해 탐라에 도착했던 점도 중요하다. 당시 대도는 중국은 물론이고 서아시아 및 동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찾아와 교역했던 동·서교역의 중심지인 동시에 첨단 물질문명이 교차하던 세계의 수도라 할 만한 곳이다.⁶⁹⁾ 따라서 이들 대도인들이 개경을 거치지 않고 탐라로 왔던 점은 이전의 변방에 머물던 탐라를 순식간의 세계문화가 교차되는 문화 수혜지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즉, 대도의 물질문명이 주는 혜택을 직접 수혜받음으로써 탐라는 명실상부하게 몽골화한 국제도시로 변성하게 되었다.

100여년에 걸친 몽골인들의 탐라거주로 자연스럽게 탐라여성들과의 혼인이 빈번해졌고, 점차 몽골인과 탐라인 사이에 半몽골화 半탐라화가 진행되면서 상호 결속력이 강화되었다.⁷⁰⁾ 본래 몽골리아는 스텝기후의 특성상 연 강수량이 300mm이하이기 때문에 여름 한 시기를 제외하고 초지 조건이 매우 불확실한 편이다. 그러나 탐라는 연평균기온이 14-16도 정도로 따뜻하고 사계절 내내 다양한 풀들이 분포하는 초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목축의 최적의 조건이 되었기에 도래한 몽골인들에게 탐

67) 蔭木原洋, 20쪽.

68) 김일우, 2000, 334-335쪽.

69) 마르코폴로 저, 김호동 역주,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235-240쪽.

7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旌義縣 烈女條.

라는 ‘樂土’로 인식되었다.⁷¹⁾

몽골인들 사이에 탐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388년에 토구스 테무르 카안이 달라이 노르 전투에서 완전히 패한 후에 많은 몽골황족들이 명에 투항했다. 명조의 투항정책은 유목사회의 지배계층에 대한 간접지배-자율적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항한 황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⁷²⁾ 따라서 ‘몽골 친왕 등 80여호를 탐라에 거주하게 하라’는 주원장의 요청은 실제로 투항한 황족들의 요구사항일 가능성이 농후하다.⁷³⁾ 달라이 노르 전투로 대원제국이 소멸되면서 몽골리아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투항한 황족들의 대다수가 중국이 아니라 탐라에 거주하기를 희망했던 점은 당시 몽골인들의 탐라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⁷⁴⁾ 여하튼 몽골 지배기 도래한 몽골인들은 탐라에 안착해 현지화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몽골 후손들은 몽골제국 소멸이후에도 19세기 중 후반까지 ‘大元’본관을 유지하며 나름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⁷⁵⁾

몽골의 탐라지배 100년을 통해 탐라는 신속하게 몽골화 되어 하나의 작은 몽골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탐라의 몽골화·국제화는 토곤 테무르가 자신의 거처를 탐라로 옮겨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안정적인 형태로 변모해 있었다. 결국 중원과 대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항후와 아유시리다라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덜 미치면서 당시 만연했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던 토곤 테무르 카안에게 탐라는 궁전을 조성할 최적의 후보지가 될 수 있었다. 이에 1365년 3월 이후 국정에서 물러나 있던 토곤 테무르 카안은 그 해 10월

71) 『고려사』 권43, 공민왕21년 9월조

72) 윤은숙, 「나카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 정세」, 『명청사연구』 28, 명청사연구회, 2007, 17쪽.

73) 『고려사』 권137, 열전50 신우5.

74)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 2010. 182쪽)는 이 때 이주한 몽골 귀족들이 탐라를 선택한 이유는 토곤 테무르 카안이 조성한 피난궁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75)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호적증조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역사문화학회, 2010, 310-315쪽.

테무르 부카를 탐라로 보내 피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명령했을 것이다. 테무르 부카 귀국 후 토곤 테무르 카안이 御府의 金帛을 탐라로 수송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탐라궁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⁷⁶⁾

IV. 탐라궁전 조성 결과

1367년(지정27)에 이르면 아유시리다라가 이미 토곤 테무르 카안의 권력을 압도하였다. 이에 대해 『元史』에서는 그 해 “6월에 황태자 아유시리다라 침전의 後面에 새로 건설한 우물에서 용이 나타나 불꽃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궁인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⁷⁷⁾”라고 묘사함으로써 권력 이양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8월에 토곤 테무르 카안은 모든 권력을 아유시리다라에게 넘겨주겠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른다. 토곤 테무르 카안은 궁정대신들을 모아놓고 아유시리다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天下兵馬, 諸王, 駙馬, 各道總兵, 將吏를 총괄하고 모든 軍政에 관한 사무, 생사여탈, 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짐의 裁決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다.⁷⁸⁾

이를 통해 토곤 테무르 카안은 모든 권한이 아유시리다라에게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권력이양을 천명함은 1365년 3월 이후 실권을 잃어버리고 허수아비 황제로 전락했던 토곤 테무르 카안이 탐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1367년 8월에 진행된 권력이양 과정을 통해서도 토곤 테무르 카안의 탐라궁전 조성 원인이 제국의 멸망에 즈음해 피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즉, 아들에게 권력을 넘긴 후 자신은 수도인 대도를 떠나 탐라에 거주하며 편안한 여생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 권력이양 후에 토곤 테무르 카안은 막바지 탐라궁전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76) 岡田英弘, 2010, 178-179쪽.

77) 『원사』 권47 「순제본기」지정17년 6월조.

78) 『원사』 권47 「순제본기」지정17년 8월조.

그러나 탐라궁전을 조성하고 탐라로 옮겨 거주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고려사』의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때 왕이 원나라 목수 元世를 제주도에서 불러 와서 영전공사에 사용하려 했는데 원세 등 11인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왔다. 원세가 여러 宰輔에게 말하기를 “元 황제가 토목을 일으키기를 좋아해서 민심을 잃고 四海를 보존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아 우리에게 탐라에 궁전을 조성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避亂할 계책으로 한 것이었는데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원이 망했습니다. 우리는 衣食을 잃었다가 이제 부름을 입어 다시 의식을 얻게 되니 萬幸입니다. 그러나 원은 천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을 고달프게 해서 망했는데, 고려가 크다 해도 민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재상들께서 왕에게 아뢰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상들이 감히 왕에게 말하지 못하였다.⁷⁹⁾

위의 기사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1367년 2월 이전에 탐라궁전 조성을 명령하고 이로부터 1년 뒤인 1368년 7월에 원이 대도에서 철수했으므로 이 때까지 탐라궁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원세가 고려 궁정에 입궁한 때가 1369년 9월이므로 이 때까지 그가 탐라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1368년 7월까지 궁전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원이 망해 衣食을 잃었다’는 표현으로 보아 원이 북상하면서 그동안 궁전 조성을 위해 조달되었던 물자가 끊어져 파견된 이들이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목수 元世’가 누구인지에 대해 사료의 한계 상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의 사실로 볼 때 원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임은 분명하다. ‘원이 백성을 고달프게 해서 망했다’는 그의 주장으로 보아 그가 몽골인이 아님도 확실하다. 따라서 토곤 테무르가 ‘토목을 일으켜 민심을 잃고 사해를 보존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아 탐라궁전을 조성하게 했다’는 그의 주장은 다소 신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非몽골족 출신 목수로서는 토곤 테무르가 궁전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만약 망할 것을 예상해 궁전을 조성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궁전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79) 『고려사』 권41, 공민왕18년 9월조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시기 토곤 테무르 카안 자신도 원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세의 주장은 토곤 테무르의 생각이 아니라 원의 북상 소식 후 변화한 원세의 對元인식을 반영하는 일단이라 하겠다.

비록 원이 북상했던 1368년 7월 이전에 탐라궁전이 완성되었다 해도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토곤 테무르 카안이 탐라로 옮겨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⁸⁰⁾ 1368년 정월에, 주원장은 즉위하자마자 북벌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군대를 대도로 보내 원을 몰아내려 했다. 원정부는 명의 신속한 북상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군이 대도에서 하루 정도의 거리인 通州까지 오자 매우 다급해졌다. 이에 토곤 테무르 카안은 “예수는 이미 패했고, 쿠케 테무르는 먼 太原에 있어 어찌 援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⁸¹⁾”라고 탄식하며 大都城에 몇몇 장수만 남겨둔 채 7월 28일 밤 급히 대도성을 탈출했다. 한편, 원정부가 떠난 뒤인 8월 3일에 徐達과 常遇春 등이 대도성에 도달했고, 성을 지키던 淮王 테무르 부카, 丞相 慶童, 大都路總管 廓允中 등의 장수들이 명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명은 대도의 이름을 北平으로 고치고 상도에 있는 토곤 테무르 정권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⁸²⁾

북상한 무리들은 이후 계속되는 雨天으로 8월 15일야에 상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상도는 10여 년 전에 홍건적의 공격으로 궁궐과 관청 등이 불타 버려서 제2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기에, 북상한 토곤 테무르 일행은 民家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요양행성의 左丞 예센 부카가 제공한 비단 2만 필과 곡식 5천석으로 오르두(Ordu, 行宮)를 건설할 정도로, 상도로 퇴각한 원 궁정의 경제사정은 열악했다.⁸³⁾ 상도의 궁정이 조금 안정되자 원은 9월부터 군신들을 모아 놓고

80) 탐라궁전이 조성되었던 실제적인 장소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료는 없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서아йма 일대의 법화사 경내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강창화, 2000: 김일우, 2015: 김경주, 2016: 김태능, 1967 등). 필자 역시 토곤 테무르 카안이 티베트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점, 안전상의 문제로 보아 몽골 목호들의 중심 지역이었던 서아йма 일대에 궁전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81) 劉佶, 『北巡私記』,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1993, 2쪽.

82) 高岱, 『鴻猷錄』,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1993, 307쪽.

대도 탈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⁸⁴⁾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1369년(지정29, 洪武2) 6월에 주원장은 常遇春·李文忠 등에게 토곤 테무르가 있는 상도를 공격케 했다. 명군이 진격해 오자 8월 토곤 테무르는 상도에서 콩기라트부의 중심지인 應昌으로 피난했다. 1370년(지정30, 홍무3)에 서달·이문충 등이 개평을 지나 응창에 도달했을 때 토곤 테무르는 이미 이질로 병사한 후였다. 탐라궁전을 조성하고 이주하려 했던 토곤 테무르의 계획은 갑작스런 원의 복상과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원의 정세 속에서 실행될 수 없었다.

한편, 탐라에 남아있던 몽골인들은 1368년 7월에 원이 상도로 복상했음에도 탐라에서 여전히 중심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원 복상 전후로 목호들은 수차례 탐라로 파견된 고려 관원들을 살해하며 고려에 반기를 들었다.⁸⁵⁾ 고려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탐욕스럽게 수탈했기 때문에 탐라 屋主나 民들도 목호들의 반란에 동조해 규모가 순식간에 크게 확대되었다.⁸⁶⁾ 비록 원이 복상하고 중원의 지배자가 바뀌었으나 탐라에 거주하던 몽골인들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변화를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되는 명의 貢馬요구에 ‘원 황제의 명령이 아니고는 명에 보려는 말 간택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⁸⁷⁾ 결국 1374년(공민왕23) 공민왕의 특별 명령을 받은 崔瑩이 탐라에 와서 목호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일단락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탐라에 거주하면서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⁸⁸⁾

고려시대에 몽골화한 국제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하던 제주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15-17 세기에 이르면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유입인은 유배인에 한정

83) Идэр, *Юань улсын Түшмэл Хөх Төмөр*, МУШПАТХ, Улаанбаатар, 2012, 145쪽.

84) 윤은숙, 「北元과 明의 대립-遼東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05, 동양사학회, 2008, 84쪽.

85) 『고려사』 권39, 공민왕5년 10월조 : 『고려사』 권40, 공민왕 11년 8월조 : 『고려사』 권57, 지리지.

86) 『고려사』 권111, 「林樸傳」.

87) 『세종실록』 권1, 세종원년 7월조.

88) 『고려사』 권44, 공민왕23년 4월조.

되었고 鮑作人이라 불리는 出陸濟州島民이 크게 증가하였다.⁸⁹⁾ 경제적 궁핍 때문에 제주도를 탈출한 사람들은 성종시기에만 1만 명 이상이 되었고 이들은 전라도·충청도·경상도 등의 해안지역을 떠돌며 물고기를 팔아서 생활하거나 집이 없는 자들은 배 위에서 생활하면서도 제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는 않았다. 조선 정부에서는 포작인의 숫자가 증가하자 경상도와 전라도에 유이민의 이름을 기록해 제주도 세 고을의 호적과 맞추어 돌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방수령의 입장에서 보면 유이민의 증가는 세수확보와 관련되었기에 조선정부의 정책에 크게 호응하지 않았다.⁹⁰⁾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 제주는 앞선 고려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세기의 유이민을 통해 대도의 발달된 물질문화와 목축기술을 수혜 받아 국제도시로 번성했던 탐라는 14세기 말 대원제국의 몰락과 함께 사라지고 조선시대에 이르면 제주는 流配地, 貢馬地로 전락해 옛 명성을 잃게 되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원말에 토곤 테무르 카안이 탐라에 피난궁전을 조성한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14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탐라가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된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367년 2월 이전에 활동했던 홍건적, 장사성과 주원장 등은 이 시기 원에게 위협적인 세력이 아니었다. 1355년에 개국한 劉福通은 북벌군을 조성해 원에 대항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했으나 이들 군대가 모두 원군의 토벌작전에 의해 궤멸되면서 홍건적은 사분오열되어 방화와 약탈을 일삼는 도둑의 무리에 불과했다. 또한 장사성과 주원장은 각각 뿔왕을 자처하며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당시에 토곤 테무르가 이들을

89) 『성종실록』 권83, 성종8년 8월조; 『성종실록』 권86, 성종8년 11월조 등.

90)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탐라문화연구원, 2005.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토곤 테무르가 흥건적이나 장사성·주원장 등의 성세를 두려워 해 피난궁전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이 시기에 토곤 테무르 카안과 아유시리다라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은 제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기황후가 1356년과 1359년을 전후로 내선을 시도하면서 궁정은 황제파와 황태자파로 분열되었고, 여기에 군벌세력이 가담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결국 쿠케 테무르와 결탁한 아유시리다라가 권력을 장악하였고, 토곤 테무르는 허수아비 황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시기 그는 궁정의 권력 다툼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여기에 대도에서 전염병까지 발병하자 아유시리다라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탐라로 옮겨 살기를 희망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4세기 탐라는 국영목장이자 황실목장으로 대원제국 내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많은 몽골의 관원, 주둔군과 목호들이 이주해 왔다. 이때 몽골인들이 개경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도에서 배를 타고 탐라로 오면서 탐라는 빠르게 대도의 물질문명과 교류하게 되었다. 여기에 몽골인들과 탐라인들 사이에 혼인이 빈번해지면서 탐라는 일종의 몽골화한 국제도시로써 변성하였다. 이 시기 토곤 테무르 카안이 탐라로 거주지를 옮겨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탐라는 일종의 ‘작은 몽골’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찍이 토곤 테무르는 대청도 섬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기에, 권력투쟁이 난무하고 역병의 발병으로 위협했던 대도에서 벗어나 탐라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희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군이 1368년 7월에 갑작스럽게 通州에 도달하자 원은 급하게 상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이어 토곤 테무르가 사망하면서 탐라 이주는 영원한 꿈으로만 남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耽羅紀年』. 『續通志』. 『師山集』.
 『新增東國輿地勝覽』. 『四佳集』. 『五洲衍文長箋散稿』. 『國初群雄事略』. 『元史』.
 『明史』. 『明太祖實錄』.
- 劉佶, 『北巡私記』,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1993
 高岱, 『鴻猷錄』, 『明代蒙古漢籍史料匯編』, 內蒙古大學出版社, 1993.
 『庚申外史箋証』卷下, 任崇岳, 中州古籍出版社, 1991.
-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新書苑, 2000.
- 오타기 마쓰오 저, 윤은숙·임대희 역, 『대원제국』, 혜안, 2013.
- 오함 저, 박원호 역, 『주원장』, 지식산업사, 2003.
- 襄津郡郷里誌編纂委員會 編, 『襄津郡郷里誌』, 예일문화사, 1996.
- 岡田英弘, 『モンゴル帝國から大青帝國へ』, 藤原書店, 2010.
- 강창화, 『濟州 法花寺址의 考古學的 研究』, 『濟州道史研究』 9, 제주도사연구회, 2000.
- 高昌錫, 『元高麗紀事』耽羅關係 記事의 檢討』, 『慶北史學』 21, 경북사학회, 1998.
- 권오중, 『大靑島에 온 流配人』, 『人文研究』 20-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김경주, 『고고자료로 살펴 본 원과 제주』,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 학술대회』, 한국몽골학회, 2016.
-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호적증중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역사문화학회, 2010.
- 김일우, 『제주 江汀洞 ‘대궐터’ 유적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학보』 60, 한국사학회, 2015.
- 김태능,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 『제주도』 31, 제주도청, 1967.
- 민현구, 『高麗 恭愍王代 중엽의 정치적 변동』,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2009.
- 박원길, 『대몽골(元)제국 시대의 양마법(養馬法)과 기마장비』, 『제주도연구』43, 제주학회, 2015.
- 에르테니 바타르, 『元·高麗 支配勢力 關係의 性格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대학원, 2006.
- 윤은숙, 『北元과 明의 대립-遼東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05, 동양사

학회, 2008

이경희, 「고려말 紅巾賊의 침입과 安東臨時首都의 대응」, 『부산사학』 24, 부산사학회, 1993.

전영준, 「13-14세기 元 목축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 변화」, 『濟州道研究』 40, 제주학회, 2013.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탐라문화연구원, 2005.
郭珂·張功員, 「元代疫灾述論」, 『醫學史研究』 29, 醫學與哲學, 2008.

瞿大風, 「元末山西의 軍事爭奪」, 『蒙古學集刊』 1, 內蒙古大學蒙古學研究中心, 2012.

瞿大風·崔樹華, 「元末統治集團對山西地區的爭奪及其作用」, 『蒙古學信息』 2, 蒙古學信息編輯部, 2002.

王崇武, 「論元末農民起義的發展蛻變及其在歷史上所起的進步作用」, 『元史論集』, 北京圖書館出版社, 1984.

李嶺, 「元順帝企圖避亂濟州島發微」, 『北大史學』 16, 北大史學雜誌社, 2014.

張金奎, 「明初倭寇海上三角“貿易”略論」, 『求是學刊』 41, 求是學刊編輯部, 2014.

_____, 『元代地方行政制度研究』, 安徽大學出版社, 2000.

高橋琢二, 「元末張士誠政權の興亡」, 『史學』 31, 三田史學會, 1958.

蔭木原洋, 「洪武帝期の對外政策考-濟州島に焦点を當てて-」, 『東洋史訪』 4, 兵庫教育大學東洋史研究會, 1998.

Д. Гүн-Үй лс, *Монгол Хаад 9, Төрт Ёс Хаадын Сан*, 2006.

Идэр, *Юань улсын Түшмэл Хөх Төмөр*, МУШУАТХ, Улаанбаатар, 2012.

David M. Robinson, *Empires Twilight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published by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for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and London, 2009.

Abstract

Togon Temür's Tamla Palace in the late Yuan empire

Yoon, Eun-Sook*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definition of the palace set up in Tamla by Togon Temür of Yuan empire as an 'evacuation palace' aiming to escape from the threat of Red Turban or the peasant revolt forces. Since Red Turban had already fallen into a band of thieves, broken up by the troops of Yüan dynasty before February 1367 when he planned to set up a palace, first, it cannot be deemed as threatening forces. In addition, since Zhu Yuanzhang and Zhang Shicheng, who were the representative anti-Yuan powers in Jiangnan, were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waging wars, Togon Temür did not consider them threatening.

At the time, the event that cornered Togon Temür the most was the loss of his reign of power due to two attempts of abdication of the crown prince power represented by Qi Empress and the conflict between warlords. Falling into a scarecrow emperor, he felt disgusted with power, and as infectious disease occurred in Tamla successively, crown prince, he handed over his power to Ayusiridara and wished to set up a palace in Tamla and to move and live there.

In the 14th century, Tamla had a nature of a Mongolized international

* Professor, Kangwon Univ.

city with the spread of Daidu's material civilization and Mongolia's farming techniques. Therefore, Mongolians regarded Tamla with heterogeneous landscape as 'paradise,' and in addition to this perception, Togon Temür, disgusted with power established a plan to set up a place in Tamla and move there.

* Key Words : Tamla, Goryeo, Yuan empire, Mongol, Togon Temür, paradise

교신 : 윤은숙 2591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34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E-mail : tongalak@kangwon.ac.kr)

논문투고일 2016. 08. 08.

심사완료일 2016. 10. 04.

게재확정일 2016. 10. 07.

